

“마음 따뜻해지는 보물같은 영화”



영화 '담보'에서 사채업자로 호흡을 맞춘 성동일과 김희원



5년 만에 한국영화에 복귀해 어른 '승이'를 연기한 하지원

'담보'서 호흡 맞춘 성동일·하지원 성 "기성세대 책임감으로 출연" 하 "가족의 사랑 느껴... 많이 웃었다"

“사채업자 두 아저씨와 아홉살 꼬마 승이가 가족이 돼가는 과정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보물 같은 영화입니다.”

영화 '담보'로 호흡을 맞춘 배우 성동일·하지원·김희원이 영화가 주는 따뜻함을 강조했다.

'담보'는 인정사정없는 사채업자 두석(성동일 분)과 그의 후배 종배(김희원)가 떼인 돈을 받으러 갔다가 얼떨결에 아홉살 소녀 승이(박소이)를 담보로 맡아 키우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두석을 연기한 성동일은 12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기성세대의 책임감으로 '담보' 출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자식을 세 명 키우다 보니 기성세대가 주변에 어떻게 시선을 돌려야 하는지 관심이 깊어요. 기성세대가 (주변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그는 “승이가 가족이 돼 가는 과정에서 사랑과 진심이 느껴지고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다”며 “이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아서 많이 웃기도 했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 대해 감사함을 더 느낄 수 있었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영화에 5년 만에 복귀한 하지원은 어른 승이 역을 맡았다.

그는 “승이가 가족이 돼 가는 과정에서 사랑과 진심이 느껴지고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다”며 “이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아서 많이 웃기도 했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 대해 감사함을 더 느낄 수 있었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그리면서 “승이가 두 분의 사랑을 받고 느낀 걸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다”며 “극적으로 만든 감정보다는 그 진심을 현장에서 느끼며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성동일은 “하지원 씨가 어른 승이를 연기하면서 붓 뜬듯한 느낌이 더 진지해졌다”며 “한번은 하지원 씨가 눈물이 터져버려서 마음껏 울 때까지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이 하지원 씨 주변을 떠난 적이 있을 정도로 몰입했다”고 말했다.

tvN '바퀴 달린 집'에 함께 출연하기도 하며 절친

한 사이를 자랑하는 성동일과 김희원의 연기 호흡도 영화의 중요한 포인트다.

김희원은 자신이 맡은 종배를 “더 착할 수가 없을 정도로 순진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화 속에서 두석과 종배 둘 다 가족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승이까지 세 명이 가족으로 비칠까 생각하면서 연기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성동일과 호흡에 대해선 “형님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잘 통하고 받아준다”고 했다.

성동일도 “희원이가 촬영 전에 준비를 많이 해주었다”라며 “내 하루 24시간 중 1분이라도 (삶에) 들어와 있는 존재”라고 화답했다.

어린 승이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등에 출연한 박소이가 맡았다. 박소이는 무려 30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

연출을 맡은 강대규 감독은 “촬영 직전까지 승이 역할 배우를 못 찾았는데, 윤제균 감독을 찾아갔더니 '오디션에서 1등 한 배우가 있다'고 알려줬다”며 “(박소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면 승이 역할을 잘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단번에 들었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개봉. /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과 현대사 조명

광주 MBC '최영태의 김대중 특강'

광주 MBC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과 현대사를 조명한 유튜브 콘텐츠 '최영태의 김대중 특강' (사진)을 선보인다.

오는 18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앞두고 제작된 이 콘텐츠는 지난해 '황동현의 시선집중'에서 선보였던 40편의 특강을 13편으로 압축하고 다양한 영상을 더해 재구성한 것이다.

특강은 지난 10일 시작했으며 매일 오전 11시에 하루 한 편씩 총 13편을 차례로 공개한다. 유튜브 검색창에 '광주MBC'를 입력하면 볼 수 있으며 납치와 사형선고, 망명까지 숏한 시련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된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 역경을 망라한다.

1973년 박정희가 김대중을 수상시키려 한 이유, 전두환의 등장과 민주주의를 꿈꾼 김대중의 운명, 전두환의 헌정 유린과 80년 5월을 살펴본다. 또한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와



1990년 3당 합당, 김대중의 손을 잡은 노무현, 1992년 대선 패배는 물론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눈앞에 닥친 IMF 외환위기 등을 담았다.

특강을 맡은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5·18연 구소장과 인문대 학장, 한국독일사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베른슈타인의 민주적 사회주의론', '독일통일의 3단계 전개과정',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 등을 펴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이효리, 카카오M 예능서 일상 공개

'페이스 아이디' 첫 출연자

그를 썸스리로 올려놓을 썸스리한 가수 이효리 (사진)가 카카오M과 손잡고 디지털 예능에 출연해 일상을 공개한다.

카카오M은 오리지널 디지털 예능 '페이스 아이디'에 첫 출연자로 이효리가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스타들과 하루 24시간을 함께하는 스마트폰을 통해 그들의 소중한 일상을 공개한다는 콘셉트의 리얼리티다. 이에 따라 화면도 일반적인 가로 화면이 아닌 세로형 콘텐츠로 제작된다.

이효리는 특유의 거침없는 입담과 탈탈함과 화려함을 오가는 일상을 솔직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연출은 '딩고'에서 디지털 드라마·예능 콘텐츠 총괄을 맡았던 유일한 PD와 '요즘애들',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등을 연출한 안현진 PD가 맡았다.

유 PD는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스타들의 리얼 라이프 공개라는 콘셉트에 따라,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롭고 흥미로운 형태와 내용의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며 “이효리를 시작으로, 다양한 스타들의 솔직하고 색다른 일상을 공개할 테니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4일 (음 6월 25일 己丑) ☎ 010-9790-8237

<p>子 36년생 더 좋은 조건으로 변경되는 판세로다. 48년생 술선수범 한다면 자연히 따르게 되어 있느니라. 60년생 일정기간 동안은 무사태평하게 될 것이다. 72년생 절실한 것에 대한 언급이 있으리라. 84년생 중차대한 일임으로 잘 새겨 두어야 할 것이다. 96년생 처음부터 오르지 않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안전하겠다. 행운의 숫자 : 29, 90</p>	<p>卯 39년생 요인은 따로 있으니 허방 짚지 말아야 하느니라. 51년생 책임 의식이 절실한 때이다. 63년생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게 되어가니 난감해지리라. 75년생 포부를 펼쳐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도다. 87년생 체면을 의식하지 말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때다. 99년생 관계와 입장까지 감안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행운의 숫자 : 37, 95</p>	<p>午 42년생 작은 일을 잘 해내야 큰일도 치룰 수 있는 법. 54년생 방심하다가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느니라. 66년생 짧은 시간 동안에 잇따라 일어날 것이다. 78년생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 발발하리라. 90년생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02년생 이치에 어긋남이 없어야 오래 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3, 58</p>	<p>酉 33년생 생활화한다면 참으로 유용할 것이다. 45년생 잘 살 펴보고 모색한다면 확실한 대안이 마련되리라. 57년생 알고 있다더라도 현연히 대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69년생 고정 관념을 버리는 것이 능률적이다. 81년생 예상치 보다는 못 미치나 도움은 될 것이다. 93년생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6, 97</p>
<p>丑 37년생 술에 넣은 팔이라도 익혀야 먹는 법이 아니라. 49년생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유리하다. 61년생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을 것이다. 73년생 차근차근 해나가자. 85년생 비슷하다면 적당한 선에서 상제하는 것도 좋다. 97년생 대세에 따르지 말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47, 74</p>	<p>辰 40년생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날 수도 있는 국세이다. 52년생 길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갖가지 난제를 덩어리다. 64년생 성사시키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76년생 의욕적으로 실행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88년생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목전의 상황에 충실하라. 00년생 결기지를 버리고 몸통을 끌어안아 보자. 행운의 숫자 : 41, 57</p>	<p>未 31년생 절제로 인한 부가적 효과가 상당하다. 43년생 체면 차리려다가 꼬이는 수가 있다. 55년생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라. 67년생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합당하다. 79년생 새로운 변화를 꾀한다면 재물이 들어올 수 있다. 91년생 간접 경험의 효과가 매우 크겠다. 행운의 숫자 : 45, 87</p>	<p>戌 34년생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46년생 차이가 심하다. 58년생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 70년생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다. 82년생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진행되리라. 94년생 방심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18, 66</p>
<p>寅 38년생 여러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게 되리라. 50년생 완전히 반전 될 수도 있는 기운이다. 62년생 잘 살펴볼 일이다. 74년생 희망을 잃지 말고 정성을 다하도록 하자. 86년생 탄력이 불면서 증가 일로에 놓이리라. 98년생 새로운 길목에 들어선다. 행운의 숫자 : 79, 60</p>	<p>巳 41년생 오랫동안 부담을 주는 골칫거리가 생겨날 것이니라. 53년생 발전으로 이끄는 새로운 기운이 보인다. 65년생 조건을 완화한다면 효과가 더 크다. 77년생 속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니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리라. 89년생 급한 불부터 끄고 봐야 할 것이다. 01년생 계획했던 대로 진행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8, 73</p>	<p>申 42년생 작은 일을 잘 해내야 큰일도 치룰 수 있는 법. 54년생 방심하다가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느니라. 66년생 짧은 시간 동안에 잇따라 일어날 것이다. 78년생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 발발하리라. 90년생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02년생 이치에 어긋남이 없어야 오래 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3, 58</p>	<p>亥 35년생 선택 여하가 판국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47년생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불리하다. 59년생 작정하여 왔던 바를 성취하는 시세이다. 71년생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지키는 것이 낫다. 83년생 방치 한다면 더 어렵게 만든다. 95년생 센스 있게 대처하고 재치 있게 판단해야만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3, 89</p>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서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주문 (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p>	<p>(유)신 화 로 프 본점 : 나주시 청동길 244 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망 전국최저가도·소매 ☎ 061)335-2301~2, 010-3429-6400</p>	<p>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p>	<p>약초당건강원 동구 산수동 557-33(산수시장동) 인삼·발골·홍삼·생약초음·봉어즙·장어즙 달발즙·침즙·포도즙 각종고춧가루 ☎ 062)224-9559, 010-3617-9779</p>	<p>명품크리닝 전문점 서구 치평동 275-22(우리들병원옆) 명품스키즈·운동화·가방·카펫·염색·복원·수선·일체 주인 직접명품세탁, 유모차 전용 세탁소·오른 (비대면 수거·배달, 문자접수) ☎ 010-6559-6700</p>	<p>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p>
<p>고 전 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p>미가한우명가 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옆편)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 ☎ 061)333-0505, 010-4390-3366</p>	<p>비 비 가 동구 대인동 영무파라드2차 1층 “완벽한 한그릇 비빔밥” 비빔밥 & 해산물 비빔밥·비빔면·김치·생선·비빔밥·연어·전·회·떡 ☎ 062)229-1008, 010-8572-0999</p>	<p>어주문물장어탕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양4로82번길4-7 민물장어탕·민물장어구이 포장가능합니다 ☎ 061)285-1255, 010-8620-8171</p>	<p>사랑방공인중개사사무소 북구 운암동 미라보3차@상가동 3호 아파트, 빌라, 주택, 상가, 토지, 임야매매·전월세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신용분위 ☎ 062)574-8924, 010-9332-8184</p>	<p>석 당 화 랭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p>장 어 수 산 북구 서암대로 88(신안다리앞) 무항생제 장어사용 포장배달·전국택배배송·선물포장해드립니다. 신용분위 ☎ 062)412-1961, 010-5828-1961</p>	<p>우리식당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p>	<p>신신 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p>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북구 북문대로 35(운암동) 상가·아파트·주택·토지·각종부동산매매상담 고객만족! 책임중개! ☎ 062)225-3303, 010-2651-6409</p>	<p>한성꽃화원 나주시 나주로71(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화화환, 동·서양관, 관엽·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p>	<p>초 대 화 랭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마루전통한방차전문점 나주시 영산포로184-1(영산포우체국앞) 심전대봉탕, 생화탕, 대추탕, 오미자차, 생강차 각종과일주스, 구워낸 가래떡과 초창을 드립니다 ☎ 061)333-6567, 010-7200-6567</p>	<p>만 복 당 동구 제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p>	<p>박 당 화 랭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p>			